비판이론 관점에서
고부담영어시험의 속성 재탐색

신동일*

〈차 례〉

1. 문제제기
2. 비판이론의 이론적 유용성
3. 비판이론과 응용언어학 연구
4. 비판이론과 고부담영어시험의 논제 탐색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고부담영어시험이라는 언어평가 체계에 대한 대안적 실천담론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응용언어학의 분과 학문 중 하나인 비판적언어평가론의 보다 다면적인 지적 토대를 탐색하는 것이다. 언어시험의 주권적 권력과 오용의 문제에만 잠복된 기존의 비판적언어평가론(Shohamy, 2001)의 개념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상품화와 일차원적 인간' '소외' '지배적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의 작용' '이

*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성의 도구화와 민주주의'라는 논제에 적용시켜 보다 현실적 담론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국내 현실에서 편입, 입학, 취업 등과 같은 선발 및 배치 목적의 문지기로 사용되는 고부담영어시험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판적언어평가 이론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영어, 영어교육, 영어시험 등에 관한 경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언어평가학자는 비판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고부담영어시험의 필요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헤게모니를 인식하고, 시험문화의 규율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일차원적 인간이 되는 수험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생활세계까지 침범한 고부담시험의 경제주의, 관료주의, 기술지배주의 논리가 수험자의 인식 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비판적으로 주시한다. 본 논문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교조적이기보다는 자기비판적 탐구정신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수험자와 평가자, 시험과 반시험 등의 이항대립적 논쟁을 유도하기보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이론이 보다 일상적 학술운동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주제어: 비판이론, 비판적응용언어학, 비판적언어평가론, 고부담시험

1. 문제제기

서구 근대 보편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의 억압 구도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판이론 등을 통해 응용언어학 학술담론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Morgan, 2007) 거시적, 대안적,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신념체제에 집중하는 비판적응용언어학은 주류 담

론의 외부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고 언어의 형태와 규범화에 집중하는 표준화 작업과 개인 간 경쟁론으로부터 구축된 기존의 응용언어학 혹은 언어교육 연구물과 대비적인 논점을 갖는다. 비판이론에 기반을 둔 응용언어학, 언어 페다고지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박휴용, 2008, 2009; 성기완, 2009; 신동일, 2011a, 2011b, 2012; 이창봉과 박주식, 2007; 정정호, 2004), 연구 성과물을 게재할 학술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각 세부 영역별 연구자 수도 많지 않아서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협력하며 대안적 학술활동을 진척시킨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은 비판적응용언어학의 여러 분야(비판적담론분석, 비판적언어평가, 번역, 언어계획, 언어권리, 언어정책, 문식성교육, 페다고지 등의 비판적 접근) 중에 비판적언어평가론을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영어능력을 모형화시키고 측정하는 학자들이 언어능력 평가 활동을 과학이나 공학적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정치적인 권력담론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해외 연구자들(Lynch, 2001; Pennycook, 2001; Shohamy, 2001; Spolsky, 1995)이 최근 10여 년 동안 여러 연구물을 발표했다. 기존 학자들이 실증주의, 심리측정학 기반으로 시험 연구를 수행한 것에 비해 비판적언어평가자들은 평가자와 수험자라는 이항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탈근대 담론의 관점에서 수험자의 권리 회복, 평가자의 비윤리성 고발, 시험의 오용과 권력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Shohamy(2001, pp. 131-132)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시험의 권력적 측면을 주목했고 Foucault(1979)와 Bourdieu(1991)의 권력담론에 기반을 둔 '비판적언어평가론'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비판적언어평가론은 종래의 시험 사용 및 개발의 전통에 도전하면서 시험사용자, 특히 수험자들로부터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참여와 연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비판이론에 기반을 두고 계급과 권력의 관점에서 시험의

오용 사례를 고발한 초기 비판적언어평가론은 여전히 이론적인 구성력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험자와 평가자가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서로가 이분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 집단의 특성이 너무 고정적이고 단순하다. Shohamy(2001)의 비판적언어평가론에 묘사된 수험자들은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집단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평가자들은 억압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억압자-피해자의 단순 구분만으로는 시험 (사용)의 권력과 사회정치적 단면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유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녀의 저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기반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나 본문 안에서 비판이론의 틀이 구체적으로 상술되고 적용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비판적언어평가론이 개념적으로는 소개가 되었지만 다양한 학술 논제가 충분히 탐색되지 못해서 언어시험에 관한 복잡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고부담영어시험이라는 언어평가 체계에 대한 대안적 실천담론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응용언어학의 분과 학문 중 하나인 비판적언어평가론의 보다 다면적인 지적 토대를 탐색하는 것이다. 언어시험의 주권적 권력과 오용의 문제에만 잠복된 기존의 비판적언어평가론(Shohamy, 2001)의 개념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상품화와 일차원적 인간' '소외' '지배적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의 작용' '이성의 도구화와 민주주의'라는 논제에 적용시켜 보다 현실적 담론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국내 현실에서 편입, 입학, 취업 등과 같은 선발 및 배치 목적의 문지기로 사용되는 고부담영어시험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판적언어평가이론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영어, 영어교육, 영어시험 등에 관한 경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판이론의 이론적 유용성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다수를 억압하는 소수의 부적절한 관행과 전통을 비판하는 마르크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와 관료적 합리주의가 적절하지 않은 권력의 규율, 기계적 순응, 혹은 일차원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보다 다양한 비판이론으로 파생되어 지금 이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권력을 성찰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전략을 생산하고 있다.

비판이론으로부터 언어교육 현장을 바라보면 개인의 자기실현은 개인의 역량과 개인 간의 경쟁으로부터 올 수 없으며 자본주의적 소외를 경계하고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를 건설할 때만 가능하다는 관점을 갖게 된다. 경제주의 논리는 언어, 언어학습, 언어시험을 상품적 가치로 이해하고 학습자를 상품을 구매하는 객체와 개체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주의적 접근을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해한다면,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활동은 좀 더 생활이나 놀이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위협적이거나 경쟁적인 환경을 지양할 뿐 아니라 협력적이면서도 전인격적인 배려를 언어교육 공동체에서 실행해야 한다. 비판이론은 경제주의 기반의 기존 언어교육에 대안적 담론이 될 수 있다(Reagan & Osborn, 2002).

비판이론은 소비가 조장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대중이 허구적 욕망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판이론은 실제든 가상이든 삶 속에서 거짓 욕망을 좇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대중을 자각시키고자 한다. 국내 외국어교육 현장을 보면 비록 언어학적으로는 불완전하더라도 동등한 말차례를 가진 대화나 자신만의 확장된 스토리로 삶을 전달하는 학습, 혹은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말과 글로 옮겨보는 학습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보다 문법적으

로 완전한 문장, 혹은 원어민이 사용하는 발음이나 표현 학습을 반복하는 거짓유창성 학습이 과장되어 있다. 제2언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정체성을 성장시키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데 여전히 탈맥락적 환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시험 기반의 객체화된 학습을 강요받고 있다. 만약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강요되는 것을 지나치게 학습(소비)하고 있다면 대중의 각성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비판이론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모국어 학습과 함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제2언어(혹은 외국어)의 학습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해당 자원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중급 수준의 언어능숙도를 확보하는 행위마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배워야 하고 그러한 학습 결과물로부터도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제한된 수준의 언어능숙도마저도 물화하는 사회적 풍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언어행위를 더 빨리 획득할 수 있거나 시험을 통해 더 잘 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인격적 성장(논리, 인지, 정서, 문화, 관계 등)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가치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현상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국내 언어교육 현장, 그 중에서도 고부담영어시험의 사회문화적 단면을 이해하는데 비판이론의 사용 가치는 높다. 고부담영어시험에 관한 비판적 연구물이 다양한 연구주제와 방법으로 축적되고 있지만(Menken, 2008)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언어교육과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 고부담시험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적 사회 체제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이론은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 사회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론으로 고부담영어시험을 비

평할 때 국가에 의해 통제된 지필형 표준화시험의 정치권력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평가기관의 상업성을 보다 쉽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평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 지향성, 시장 친화적인 기술이 실제로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언어사용과 학습을 단순화시키며, 개인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쟁점을 만들 수 있다.

비판이론은 국내에서 이데올로기화된 영어시험 준비의 일상이 얼마나 수험자를 불편하게 하는지, 특히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적 질서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은 영어시험을 통해 주류권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Poster(1989)는 비판이론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시험을 만들거나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이든 교사든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적 캠페인을 준비하는 어떤 교육주체이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한다.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여전히 영어를 실제로 말하고 사용할 때 마음이 불편할까?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학생들의 능숙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일까? 영어말하기시험을 국가단위에서 시행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시험준비 방법은 왜 구문과 표현을 암기하는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할까? 멀티미디어 기반의 교육과정과 전자교재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격려하지만 학생들은 왜 여전히 자기주도적이지 못할까? 영어를 추가언어로 학습케 하면서 문화와 소통의 다양성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왜 영어는 권력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세상에서 사용되고 실제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영어에 관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어에 관한 세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이론, 그 중에서도 비판이론을 찾는 노력이 영어교육평가의 현장에

서도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고통마저도 학습자, 수험자, 교사, 교장, 학부모 개인의 역량과 경쟁력 부족, 혹은 인격성 부족 등으로 떠맡겨져지는 개체화된 사회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지심리 전통의 언어학 혹은 개인주의적 경쟁형 학습모형이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지배적인 국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주로 개인의 속성을 주목하곤 한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개인의 성취도, 능숙도 혹은 정체성 등의 문제를 개인의 속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시험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단순한 몇 가지 인과성만으로 학습의 의미나 전문가적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사회를 보다 거시적인 구조로 볼 뿐 아니라 모순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관계로 본다면 그러한 맥락 안에서의 개인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야 한다.

또한 비판이론은 사회정치적 구조 안에서 고부담시험의 개발과 시행의 사건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현재 왜곡된 언어평가의 생태계에 대안적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판이론의 속성은 정치사회적 변화를 지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세계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판이론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영어와 영어시험, 특히 고부담영어시험이 제공하는 사회적 억압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식을 비판이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이 없다면 고부담시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회구조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며 시험을 통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되찾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비판마저도 쉽지 않다.

비판이론은 대안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체제나 관행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소외와 언어(교육)의 상품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보다

민주적 사회의 전망을 역사구조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비판이론의 과제는 사회과학과 실용철학 사이의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경험적 조사와 유토피아적인 사색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대한 비판은 구상된 대안사회의 형태에 달려있다. 비판이론은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전망에서 비롯된다.”(Blookfield, 2009, p. 51).

기존의 고부담영어시험 개발과 시행의 연구가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묘사에 충실한 시스템 기반의 연구전통이었다면, 인문학적인 사유 체제 안에서 논의가 진척된 비판적언어평가론은 보다 구조적이고 규범적이면서 그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시험의 방향과 영향력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비판이론 기반의 연구가 기존의 전통을 대체할 만큼 보편적 우월함을 갖고 있다는 관점은 적절치 않으며 Lynch(2001)의 주장처럼 기존의 언어평가관에 비판적 관점을 보태면서 언어능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통에 또 하나의 필요한 접근방식을 추가한다는 입장이 바람직하다.

비판이론에 기반을 둔 비판적 페다고지, 비판적응용언어학, 비판적언어평가론 등이 총론적일 뿐 각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범적인 인상을 주는 이유는 어찌 보면 비판이론의 갖는 고유성이기도 하다. 비판이론은 규범적이고 공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한 해 200만 명의 수험자를 확보하고 있는 토익과 같은 고부담영어시험의 영속성과 편재성에 저항하기엔 비판이론과 같은 강력한 규범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 (초)국가적 기관에서 시행하거나 자본과 네트웍으로 언어능력을 획일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 되어 버리면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개인의 소외와 교육의 상품화, 일차원적 인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중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비판이

론이 이것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판이론과 응용언어학 연구

기존의 응용언어학 연구는 언어의 형태를 주목했으며, 기능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관점의 페다고지에 기반을 두었다. Cook(2003)은 'Applied Linguistics' 제목의 저서에서 언어를 통한, 또는 언어 자체의 정치적 속성을 명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비판적응용언어학 분야를 차별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Saussure가 언어학적 방법을 토대로 구조주의를 성립한 학술전통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분석자료를 통해 공통된 법칙이나 체계를 발견하고자 했으며 분석의 층위는 음소, 형태소, 문장, 담화로 구성되었다. 구조주의자들은 문화적 가치, 정치적 입장에 비중을 두지 않으며,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을 배제하고도 언어체계의 기호와 구조를 연구하면서 인간과 사회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은 구조적 보편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역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직된 과학이론에 집착하게 되고, 인간을 규격화하고, 조직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면서 모든 사물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비인본주의적, 비실존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어학 연구가 현상으로 보이는 언어의 형태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수 있으나 주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엄연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언어 사용과 습득의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회정치적 혹은 역사적 존재를 학술적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사회언어학자인 Hymes(1972)는 Chomsky의 능력(competence)-수행(performance) 이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모형을 제안했고 추후 연구자들(Canale, Swain, Savingnon,

Bachman, Palmer 등)이 모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확장했지만 여전히 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언어능력의 복수 단면을 주목할 뿐 사회문화 간 의사소통, 역사정치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모형은 좀처럼 응용언어학 연구의 핵심 주제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가치중립적 연구방법, 실증주의적 연구전통이 수십 년 동안 응용언어학 영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치를 개입시키며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언어학습자 혹은 수험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비판적 연구가 학계에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것이다.

대체로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전문가 집단은 정치사회적 맥락을 간과하는 성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미 정당화되어 있는 영어(교육)를 통한 자기실현적 가치가 특정 계층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마저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교사나 학생들에게 시험을 단지 도구적으로 학습시키는 일도 필요하지만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시험의 오용과 횡포에 대해서 숙지시킬 필요도 있다. 영어교육이 삶과 앎의 기능으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민주적인 언어공동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영어에 관한 보다 더 대안적인 담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술 연구자는 인지-언어적 측면을 지나치게 가치중립적으로 탐색했을 뿐 영어에 관한 특정 제도와 문화 단면이 국내에서 권력화되는 것에 침묵했다. 심지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어(교육)를 통한 사회적 성공과 경쟁을 부추기며 언어(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킨 연구물을 재생산했을 여지도 높다. 그래서 비판이론에 기반을 둔 응용언어학자들은 기존의 지적 전통을 반성하면서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성을 복합적으로 성찰하고, 언어와 언어교육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언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새로운 연구전통과 교육문화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anesick, 2007; Reagan & Osborn, 2002). 이러한 지식 전통으로 국내에서도 적은 수이긴 하나 관련 연구물이 꾸준히 축적되었다. 예를 들어, 이창봉과 박주식(2007)은 영어의 정치성을 지적하면서 비판적 영어교육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성기완(2009) 역시 국내 영어교육과정이 비판성과 성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김은정(2006)은 미국 중심적인 세계관이 순진하게 반영된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양영어 교재의 부적절함을 비판했다. 박휴용(2008)은 한국 문화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영어몰입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언어와 언어교육의 정치사회적 단면을 고찰한 연구물이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비판적응용언어학의 틀 안에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사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4. 비판이론과 고부담영어시험의 논제 탐색

비판적응용언어학자는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고부담영어시험의 필요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헤게모니를 인식하고, 영어시험의 규율적 권력을 알아채며,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에서 제공되는 획일적 교육문화를 비판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구논제는 비판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정치적 의제로 확장된다. 학습자, 교육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삶과 미래에 고부담영어시험이 어떻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학습자 자신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학습 공간과 민주주의 교육문화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한 비판이론 기반의 사회문화적 담론이 좀 더 국내 학계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의 핵심 논제를 국내 언어교육, 특히 고부담영어시험이 관행화되고 있는 영어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연계연구의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이 교조적이기보다는 자기비판적 탐구정신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수험자와 평가자, 시험과 반시험 등의 이항대립적 논쟁을 유도하기보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이론이 보다 일상적 학술운동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1) 상품화와 일차원적 인간

소외에서 자유, 왜곡된 자본주의나 관료주의 체제의 욕망에서부터 개인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비판이론의 핵심 주제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를 조장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했고 대중은 풍요로운 자본사회에서 사는 듯 하지만 사실은 억압적인 소비를 조장당하고 주어진 정치질서에서 순응하면서 살고 있다고 주장한 Marcuse (1964)는 이와 같은 현실순응적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One Dimensional Man)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의 도구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차원적 인간의 사고는 소비경제에서 창출된 거짓 욕망으로 보다 견고해지곤 하는데 Marcuse는 이러한 거짓 욕망이 "사악함, 공격성, 비참함, 부당함을 영속시키는 욕구들이며 이런 거짓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만족은... 사회의 병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료할 가능성을 찾아내는 인간의 능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는 바로 불행한 상태에서 느끼는 병적 쾌감이다. 이러한 거짓 욕구들의 예로는 광고 문구에 따라 행동하고 소비하려는 욕구,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려는 욕구 등을 들 수 있다"(Marcuse, 1964, p. 5, Bookfield, 2009, p. 231에서 재인용).

Marcuse가 언술한 거짓 욕구는 국내 영어시험의 시행과 준비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2)언어교육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하거나 언어공동체에 접속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는

의미, 혹은 언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재미, 개인이나 특정 언어공동체마다 갖는 동등한 언어권리 등의 가치보다는 언어지식을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진학이나 취업 등의 사회적 보상을 갖기 위해 경쟁적으로 남보다 더 좋은 시험성적을 받아야 하는 교육문화가 조장된다면 그곳은 바로 언어에 관한 기만적 욕망이 넘치는 곳이다. 그 곳은 언어학습의 유의미성을 성찰하지 못하고 대중매체나 주변의 억압적 경쟁 풍조에 의해 언어를 통한 능숙함의 욕망이 거짓으로 조작되는 곳이다. 기득권에 의해 조작된 경제-기술적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소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되며 이 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언어권리가 자본주의적 시장 가치나 소비 욕구의 경쟁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영어를 잘 하는 것도 현재 자본주의 기준에서 상품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언어를 즐겁게 학습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 혹은 조직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자본주의적 혹은 기술관료주의적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언어학습자는 일차원적 인간으로 몰개성화되며 모든 것이 시장의 가치로 판단되는 문화가 횡성하면 언어, 시험, 교육의 모든 단위 역시 자본의 단위로 환원되며 언어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도 '일차원적 수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영어든 시험이든 상품과 소비의 가치로만 공부하는 교육의 도구화, 그리고 자본주의와 기술관료주의 기반 위에서 구축되는 고부담언어시험 기반의 정책안을 비판이론의 관점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어와 시험에 관한 담론이 Marcuse가 언급한 일차원적 사고에 제한되어 있다면 왜 대중과 심지어 지식인마저 큰 영어시험의 자본주의적 혹은 관료주의적 통제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

할까? 국내에서 고부담영어시험에 관한 수많은 병폐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지만 대안과 저항이 조직적으로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시험에 의한 정책과 시험준비가 보다 강력하게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Marcuse(1964)의 지적에 의하면 거짓 욕구는 한번 창출되면 자율적이기를 포기한 일차원적 사고가 순응적으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거짓 욕구의 형성과 영속화의 배경과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비판적 응용언어학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논제와 연구방법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동일, 김주연(2011)은 지면광고 매체에 등장한 원어민 그리고 내국인 교사 및 학생의 사회적 이미지를 Goffman(1974)의 프레이밍 분석으로 이해했다.

소외와 분리를 통해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회복한다는 Marcuse의 미학 이론도 교육자들이 귀기울일 만한 흥미로운 논점이다. Marcuse는 정치적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문학작품, 미술, 노래 등을 감상하고 예술활동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일상에서부터 창조적 소외를 허락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978, p.xii). 이성으로만은 일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개인의 잠재의식에 숨어 있는 창조적 미적 감각을 활용해야 하고 성인이 독창적이고 더욱 본능적인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삶의 의지를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Marcuse는 '반란적 주체성'(rebellious subjectivity)이라고 불렀다(Brookfield, 2009, p. 80). Marcuse에 의하면 이러한 주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가치체계나 시대적 풍조, 상식, 사회적 관행에서 오는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외, 분리, 사생활의 공간이 그래서 혁명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이 권력과 시대적 풍조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이라고 가장된 언어(교육)공동체는 여전히 일차원적 인간을 양산할 여지가 많으며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미학적 접근이 언어를 통한 비판적 사고학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협력적 대화나 토론과 같은 구술공동체의 유의미성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을 몰개성화시키는 협력의 관행화는 오히려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성장을 방해시킬 수도 있다.

언어시험이 기술주의, 경제주의에 포획되면 학습자들은 학원에서 혹은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과 분리된 효율적인 학습절차, 혹은 시장 가치가 높은 지식 습득에 골몰한다. 놀이성, 언어자아 혹은 인격성의 성장, 공동체적 목적지향성을 가진 언어학습의 본질은 자연스럽게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언어를 통한 지적 자유 혹은 인격적 성장은 기술과 소비 기반의 언어교육 상품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Marcuse가 통제된 사회에서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한 예술의 해방적 힘이 고부담시험으로 신음하는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순 없을까? 예술 활동을 언어교육과 접목하고 언어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놀이성과 즉흥성, 개인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유가 어디선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2) 소외

비판이론은 국가주의나 경제주의와 같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간이 자유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전제주의는 우리의 삶과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를 소외 상태로 영속화시킨다. 오로지 부자 되는 것이 각자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모든 삶의 단면은 경제주의적 교리에 지배되는 것이고,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객체화된 자신에게서 혹독한 소외감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어고부담시험이 규율적 권력이 되고 즉흥적이고 유희적일 수 있는 초중급 수준 혹은 유초등학교 학습자의 언어사용이 규범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적

절하다고 인식될 때 결국 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하는 자유로부터 소외가 된다. 즉,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삶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유의미화시키지 못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리면 더 좋은 학교에 가거나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험자가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교육적 욕망은 보다 더 상업적이고 권력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각자는 진정한 앎의 자유, 언어사용이나 습득의 놀이성이 제거된 소외감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한다. 언어를 사용하고 공부하지만 언어를 통해 즐겁지 않고 형식화된 언어학습을 무미건조하게 반복한다.

왜 대중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지에 관한 Fromm(1941)의 논제를 Brookfield(2009)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체주의적 독재를 받아들이거나 산업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자동 기계가 되려 함으로써 그 어려움과 불편을 피한다.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주고 미리 예정된 목적이 있는 행동에 사람들을 동참시킨다. 따라서 자유가 주는 부담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p. 77). 그리고 파시즘과 나찌즘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소외의 문제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개인은 자유로운 듯 하나 자유롭지 않고, 횡포가 인식하기도 하나 ‘다수는 항상 옳다’는 명제를 쫓아가는 소외를 경험한다. 심지어 그 곳을 탈출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곳에서 인정되는 보다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 가치로 자신을 허구화시키기도 한다.

고부담영어시험의 현장에서는 Fromm이 말한 허구적 세계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한다.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은 욕망이 넘치는 만큼 실제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과 표현을 가진 수험자에 보상을

허락하는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시험 제도의 관례를 반영하듯, 영어시험을 잘 보면 돈도 벌고 행복할 수 있다는 광고도 엄연히 한국사회에 존재한다(신동일, 김주연, 2011). 열심히 공부해서 고부담 영어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면 적자생존식 출세한 인생이란 TOEIC 수험자의 인식은 일종의 허구적 질서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신동일, 김주연, 2012).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고부담시험을 반복적으로 치룰수록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룬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성취감보다는 상실감과 불편함을 더욱 빈번하게 느낀다면 고부담시험은 정치경제적 전체주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험자들은 그곳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언어 정체성을 성찰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학습자로 스스로를 혹은 자기와 다른 타자를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유와 소외를 다루는 고부담영어시험의 사회문화 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주의(Morgan, 2007)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소외는 비판이론의 중요한 연구주제이긴 하지만 시험의 권력,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연구할 때 진정 평가자는 일방향으로 수험자를 억압하는 것인지, 시험을 통해 우린 소외되기만 하는지, 아니면 평가자와 수험자를 쉽게 규정할 수도 없으며 시험이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지 관련 연구물이 전혀 축적되지 않았다(신동일, 2011a). 예를 들면, 영어를 모국어 혹은 제2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비원어민 평가자는 시험을 만들고 시행하긴 하지만 영어권 주류 학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가자 정체성(e.g., Peirce, 1992)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소외에서 탈피하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실천이 요구되는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뤄야 한다. 영어시험을 고부담으로 설정하여 개인을 객체화, 개체화시키지 않고 학습자공동체나 교사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구성하고 지원한다

면, 즉 평가권한이 다양한 집단으로 위임되고 해방적 평가지식이 대중적으로 공유되었을 때 소외의 문제가 진정 해결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방위적인 권력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 때 소외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3) 지배적 이데올로기

비판이론은 이데올로기를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고 사람들을 무의식중에 노예 상태로 만드는 관습과 구조를 정당화하는 허위 신념체계”(Brookfield, 2009, p. 65)로 보고 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며 다수의 삶과 행동을 위축시키는데 흥미롭게도 다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고 사회구조나 행동을 오히려 재생산하게끔 하는 신념체제이다. 이 때 이성은 도구화되기 시작하는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개인마다 실리만 집착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와 관료적 합리주의에 의한 지배적 사고가 선택된다(Horkheimer, 1974; Horkheimer & Adorno, 1972). Horkheimer와 Adorno(1972)는 자본주의는 오로지 경제주의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관행을 축적시키며 결국 시장 가치 기반의 성공 내러티브로 행복이 보장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Horkheimer(1974)는 우리가 가진 이성이 더 이상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체제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풍조 역시 관료적 합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영어고부담시험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측에서나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측에서 경제주의적 가치가 지나치게 중요한 행동의 준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수험자 뿐 아니라 대중매체든 학계든 고부담영어시험을 바라볼 때 이성은 단지 도구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분야의 응용언어학자는 고부담영어시험이 갖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회피하고 '의사소통' '문화간 이해' '진정성' '말하기능력' '수행능력' 등에 관한 사고나 언어를 간편한 실증주의적 혹은 경제주의적 연구자료 등으로 빈번히 환원화시킨다. 예를 들어, 동종의 시험 문항을 재생산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시험 자체의 심리측정학적 신뢰성에 연연할 뿐 자신에게 익숙한 실증주의 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로 적힌 사회문화적 담론은 철저히 배척하는 학자와 학계 풍토가 지금도 국내에서 존재하는데 이는 분명 영어고부담시험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능력평가에 관한 불평등과 부당한 불편함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영어시험제도의 사회적 관습과 결정으로는 '영어시험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적이다' '영어시험 성적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두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은 불편하지만 필요하고 중요하다' '큰 영어시험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등이다. 영어시험에 관한 시장가치와 관료적 합리주의가 개인 수험자 및 그 학부모들의 정신을 침범하면서 대안평가, 평가권한 위임제, 민주주의 평가, 고부담에서 저부담의 시험문화로 대체해볼 새로운 평가관을 학습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Shohamy(2001)는 시험과 시험준비로 발생되는 수험자의 불편함과 고통을 수험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나열했다. 과분한 지배력을 갖게 된 시험(성적의 사용)으로 인해 개인마다 누릴 수 있는 적절한 학습자 혹은 언어사용자 권리를 침해받고, 자신의 학업성취도나 언어능숙도에 대해 억울한 판정을 받게 되는 일이 빈번

하게 발생했다. 시험의 역할, 내용, 의미가 좀 더 본질적으로 의심되고 수정될 수 있지만 시험 사용자들은 순진하게 그런 시험으로 인한 사회적 통제가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분명 큰 시험이 개발되고 시험을 잘 준비해서 영어성적을 높게 받은 학습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제도라는 의식에 대해 대중적 저항이 크게 없는 이유도 영어고부담시험이 만든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아쉽게도 이와 같은 고부담영어시험에 관한 이데올로기 비평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고부담시험의 이데올로기 비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몽주의적 지적 전통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를 빠른 속도로 관통한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영어, 영어시험, 특히 고부담영어시험 정책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믿겨지고 있는 관행이 누군가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침전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언어시험의 목적은 진정성 높은 언어를 건강하게 학습시키고 언어능력을 통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 보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시험은 외국의 여러 역사적 사례처럼(McNamara & Roever, 2006) 특정 집단의 이익과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많은 수험자, 학부모, 교사 등은 고부담시험에 관한 경험을 통해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내면화된 영어시험에 관한 이데올로기 신념에 대해 직관적으로나마 저항하고 부정하곤 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시험에 관한 대중적 비평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상식과 경험을 좀 더 지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 연구자 편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연구의 사례를 국내에서 축적해야 한다.

큰 영어시험도 틀릴 수 있다. 즉, 영어시험 성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틀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영어시험에 관한 이데올

로기 비평교육의 건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된 한국에서 영어는 중요하고, 영어시험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실행되었다면 영어시험의 담론을 둔 이데올로기 비평은 '영어시험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의심일 것이다. 큰 영어시험에 의한 수험자의 삶, 그들의 시험준비에서 자율성이 강조되지만 결코 언어생태계의 측면에서는 파편적인 시험준비생으로 축소되는 것을 비평하면서 영어시험에 관한, 영어시험을 위한 보다 다양한 대안적 담론이 축적되어야 한다.

4) 헤게모니의 작용

이데올로기가 지배 집단의 생각을 모두의 생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이라면 헤게모니는 지배 집단의 신념과 행동 체제가 어떻게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수에 의해 수용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대중매체 등의 경로를 통해 의식 활동의 모든 단면에 침투되어 자신에게는 분명 억압적인 소비적 생활방식이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규범화시키는 것이 일종의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자본주의 및 기술적 합리성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화라는 하버마스의 사상 간의 개념적 간극을 메우는 다리 역할"(Brookfield, 2009, p. 125)을 하는 헤게모니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혹은 다수가 소수에게 흔쾌히 복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헤게모니 연구자는 소수의 정책입안자가 다수의 학생 심지어 다수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영어와 영어시험에 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행사시켰는지, 그리고 다수는 소수의 신념체계를 자발적으로 신봉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주목한다. 예를 들어, 토익에 관한 여론은 항상 나쁜 듯하지만 수험자 수가 줄

지 않았고 결국 지금도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시험을 치루고 있다. '그래도 토익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소수의 신념 체계는 무력행사 없이 고부담시험을 다루는 다수의 삶에 실행된 예시이다. 또는 수입시험을 사용하지 말고 비용과 편의를 계산한 공리주의적 발상으로 국가가 영어능력시험을 만들어 시행하자고 하는 것도 몇몇 신문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헤게모니를 주도한 것(신동일, 2012)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 독자는 의도된 기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신문 기사내용에 동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시험을 또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토종시험이란 헤게모니 담론에 순종적으로 응한다.

영어가 개인과 국가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되며, 그 중에서도 영어말하기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말하기)시험 성적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언론이나 학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 때부터 내면화되고 있는 영어(말하기)에 관한 헤게모니는 고부담시험에 관한 사회문화연구에 차용할 여지가 많다. 헤게모니는 단순한 사상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평생 동안 수험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부담시험의 헤게모니 연구는 왜 우리들이 구체적인 저항 없이 영어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지나친 신뢰감을 허락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언어평가 기업들이 초국가적인 조직으로 또 영리기업으로서의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영어학습 및 시험준비의 교육문화를 획일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있고(Block, 2002) 개인의 학습권, 언어사용 및 학습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Cameron, 2000)는 점을 헤게모니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와 관료주의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가 유지되고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을 무기력화시킨다고 경고했던 비판이론은 고부담영어시험의 영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 될 수 있다.

고부담시험이 개발되고 시행될 때 특정 집단의 이익은 정당화되지만 대다수의 수험자, 학습자, 학부모, 혹은 특정 계층의 대중은 어떻게 억압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시험결과를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자들의 욕망, 그리고 이익화된 집단과 적극적인 결탁을 모색하는 연구자 및 지식인들은 어떻게 서로 충돌하거나 타협하는가? 헤게모니 연구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일상의 시험 권력에서부터 자율성과 자유를 찾는 담론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성의 도구화와 민주주의

Habermas(1992)는 억압과 소외를 유도한 근대성을 회의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이성의 도구화를 비판했지만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면 비판적 이성이 회복되고 그럴 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이성이 도구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론 영역은 쇠퇴하고, 시민사회는 위협을 받으며,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세계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염려했다.

우선, 그의 지적에 의하면(Habermas, 1996, p. 360, Brookfield, 2009, p. 275에서 재인용) 현대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공동의 문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는 공론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보와 관점을 표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인식했으며 이곳을 통하여 나누는 일련의 대화는 대중의 여론으로 통합되면서 관료나 여론을 수집하는 기관에 전달되며 정치와 입법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론 영역은 “정치 시스템과 생활세계, 기능적 조직과 사적 영역 간의 중재자 역할”(Harbermas, 1996, p. 373, Brookfield, 2009, p. 276에서 재인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 영역이 쇠퇴하면서 파괴적

인 이기주의가 성장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와 여가에 만 관심을 두는 가족 지향성, 사회적 지위와 권력 향상과 맞물린 커리어 지향성의 모습을 띤 가족-직업적 이기주의를 양성한다. 경쟁적이고 서로가 객체화된 개인주의의 행태는 성과주의를 찬양하는 대중이론과 기술관료적 체제의 효과적 작동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Harbermas, 1975, p. 75, Brookfield, 2009, p. 279에서 재인용). 공론의 영역이 축소되면 부적절한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은 중화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비판적 지식인마저 공론을 나눌 문화공간을 찾지 못한다. 비민주적 사회일수록 공론은 위축되거나 금지되며 정보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이다.

고부담시험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염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영어시험, 영어학습에 관한 맹목적 상업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 가족의 정보력과 헌신, 사회적 지위와 연계시킨 영어실력의 유의미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개인이 자아실현과 경쟁력 등의 명분으로 여전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비정치적 개체로 제한시킬 때 영어에 관한 보다 다양한 공론, 즉 누가 누구에게 어떤 영어(시험)를 왜 교육시키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공적 토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영어에 관해 사회적 공론이 비판적 지식인이 결집되어 있어야 할 학계와 미디어에서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것이다. 국내 학계만 보더라도 앞서 언급된 것처럼 비판적응용언어학, 비판적언어평가론 등에 관한 연구물이 매우 제한된 숫자로만 출간되고 있음이 그 예시이다. 연구자든 학습자든 개인으로 쪼개져서 거대한 영어교육 산업의 하부구조 안에서 파편적인 연구, 혹은 타인과의 경쟁에 몰입할 뿐이라면 언어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이성의 회복은 쉽사리 획득되기 힘들 것이다.

국내 상황에서 고부담영어시험에 관한 공적 영역이 어떻게 제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매체가 어떻게 영어시험에 관한 공론을 유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비판이론 기반의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적 영역이 쇠퇴하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생겨난다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타인과 소통, 문화와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온전히 자신만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영어시험은 그러한 담론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영어교육에 관한 정치적 표현을 억제당하거나 무지한 채 수동적으로 학습을 강요받거나 경쟁을 미화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 정치적 무관심의 전통은 번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영어교육 지식인마저도 공론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성이 상실되면서 Habermas는 시민사회가 위협받는 부분도 걱정했다. 시민사회는 국가나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집합적 모임인데 Habermas의 정의에 따르면(1996, p. 367, Brookfield, 2009, p. 280에서 재인용)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여론으로 모여지면 그것을 정제하고, 공론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자발적 연합체, 조직, 운동으로 구성된 사회”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비공식적 공론이 위축될 때 그것으로 연결된 시민사회가 자연스럽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부담영어시험의 정책이 국가 권력의 힘에 의해, 혹은 시장 가치를 높여야 하는 기업의 전술로 종속될 때 각 개인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지역 공동체, 교육운동 단체, 기타 전문가집단 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영어교육의 성과를 단순히 고부담영어시험의 평균점수나 채점자간 신뢰도 지수만으로 의존할 수 없고 영어사용을 통한 봉사자 수의 증가, 가상 매체에만 의존하지 않는 면대면 개인 간 의사소통 교육환경의 확보, 학습 부진아를 위한 재정 재원 확보, 무분별한 자격 및 증명제도 대신에 사정제도의 민주적 정착과 권한위임 사례 등이 학교 안팎의 시민사회 혹은 대안학교 등에서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입지가 신자유주의적 경쟁만능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다. 언어교육을 통한 전인격적인 성장, 언어와 교육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사라지고 개인 간 혹은 학교 간 경쟁을 굳히는 고부담시험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가 집중할 때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대화공동체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Habermas(1996)가 지적한,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일상적 생활세계가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언어로 오염이 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는 개인의 삶의 위기가 우리의 생활 영역까지 자본주의와 관료주의가 침범했고 그로부터 개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거대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깊숙하게 내면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대중매체, 영리기관 등에서부터 학습한 자본주의 가치와 관료적 합리주의 기반의 사회생활 규칙은 자신의 가정, 일터 밖의 관계, 기타 공동체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돈, 권력, 합리성이 개인의 생활세계 전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게"(Brookfield, 2009, p. 84) 된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부담시험의 연구자들은 영어교육의 근본경제주의적 논리, 즉 자신을 좀 더 상품화시키기 위한 영어공부,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존재를 도구화시키는 관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기관 혹은 이익기관의 이기심 등에 관해 좀 더 연구논제를 탐색해야 한다. Habermas(1987)는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서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을 일상생활의 식민화로 묘사했다. 고부담영어시험의 자본주의 논리가 일상의 언어사용, 습득, 그리고 교육의 행위를 부적절하게 침해한다면 이 역시도 시험을 통한 일상생활의 식민화 담론으로 연결해볼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Habermas는 계몽주의의 이성이 완전히 도구화되어서 모든 도덕적 힘을 잃어버린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Habermas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성의 회복을 요구

하고 있고 참여적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성을 기반에 두고 의사소통이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도구화된 이성으로 구축된 시험 담론은 고작 경쟁, 경제, 심리측정학 등의 언어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교육과 평가의 현장에도 Habermas가 희망을 걸고 있는 계몽주의적 이성의 부활과 그 역할에 대해 비판적 연구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도구화된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고부담시험의 오용과 횡포에 저항하고, 평가의 권한을 창조적으로 위임하며, 영어평가 지식의 좀 더 대중적으로 공유하면서 시험과 교육의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와 관료적 합리주의로 구축된 현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을 소외시키거나 일차원적으로 환원시키고 물상화나 소비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성마저 도구화시킨 채 개인의 생활공간에서마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풍토를 비판한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비판이론의 핵심 논제는 국내 영어교육의 관행, 그 중에서도 가장 학습자들을 편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고부담영어시험의 교육적 타당성을 도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어를 국제어로 가르치거나 고부담영어시험 기반의 언어정책을 집행할 때 시장 교환가치, 혹은 국가나 기업의 공리주의적 정당성이 대중매체나 학계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신동일, 2012). 언어학습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을 탐색하고 그런 중에 나를 포함한 언어공동체를 배려해

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론적 목적과 분리된 채 제한된 시간 동안에 빨리 정답을 찾을 때 좋은 학교나 직장에 갈 수 있는 언어 행위 정도로 인식되는 고부담언어시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물신숭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높은 시험성적을 산출시킬 수 있는 노동, 시험을 보다 영향력 있게 보급시킬 수 있는 시장, 시험성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신의 미래 가치가 상품처럼 숭배되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비판이론은 언어능력을 고부담 시험으로 측정하고 해당 성적이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게 하는 문화를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담론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부담시험 기반 언어정책의 오용과 횡포를 경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영어시험이 고부담이 되면 보다 유의미한 교육적 가치(예: 권력, 평등, 자유의 침해, 윤리와 전문성, 교육의 의미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지고 개인 간의 경쟁만이 유도되면서 시험에 실패하면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성공하면 개인의 성취로 환언되는 개인주의관 풍조가 만연된다. 결국 모든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언어권리를 침해받을 밖에 없다.

비판이론 기반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점차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판적담론분석으로 언론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생성시킨 고부담영어시험 담론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는 부적절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의도한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실천적 담론을 여전히 실행시키고 있다(Fairclugh, 2001, 2005). 특히 영어시험의 객관성 혹은 과학적 엄밀함 여부, 정량화된 시험 결과의 활용, 시험성적으로 학생들의 언어능숙도와 성취도가 향상되었거나 되지 않았다는 철저하게 시험 기반 위의 교육담론이 여전히 빈번하게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비판적담론분석을 통해 공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어시험 담론의 정치적 편

향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분석과 심리요법을 비판이론과 연계하여 학습자 혹은 수험자의 일탈, 소외, 미숙한 학업성취도, 혹은 영어(학습, 시험)에 관한 과도한 불안감, 시기심 등을 자본주의 체제, 혹은 기존의 교육평가 체제의 내적 모순에서 발생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연구해볼 수도 있다. 이는 본문에서 언급한 Fromm(1941)의 연구전통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비판이론은 계몽주의적이고 근대주의적 전망에서 응용언어학, 언어평가론 분야에 새로운 연구 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비판이론의 본질에 기반을 둔 비판적언어평가론은 시험의 권력,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후기구조주의적 회의주의를 동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판이론은 스탈린주의이든 자본주의이든 체제 안에서 비판적 자각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해방의 근대적 논점을 부각시켰고 후기구조주의는 그러한 개념 자체를 민족, 성, 사회적 계층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단위로 계속적으로 분해시켰다. 비판적 논의의 대상을 규정하기가 좀 더 복잡해 졌지만 “다양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강조”(Brookfield, 2009, p. 53)하는 새로운 전통의 비판이론이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부담영어시험이 국가나 거대기관을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단순한 기제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국가가 통제하고 개인에게 모두 요구하는 영어시험은 언제나 억압적인 것인가? 평가자는 언제나 억압적이고 수험자는 피억압자인가? 시험을 통해 건강한 학습의 경험은 가질 수 없는가? 권력과 개인의 권한에 대한 개념은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 비판이론의 자기비판적 속성은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의 회의주의를 과감하게 수용할 때 주위에 비정치적 이론을 비아냥대는 거대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의 이론화 작업을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이론으로 인식될 수 있다. 비판이론이 다른 철학체계에 비판적으로 참가하고 도전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기비판적인 속성이 강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초기 비판이론에 기반을 둔 Shohamy(2001)의 비판적언어평가론은 수험자-평가자를 이항대립화시킨 전형적인 해방주의-모더니즘 기반, 이데올로기 비판의 비판적응용언어학 연구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연구의 전통에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적 비판논리를 상보적으로 보태고, 수험자, 평가자 등 시험 주체의 내러티브적 단면을 주목하면서 다면적 정체성을 가진 일상적 앎과 삶의 연구물을 추후 연구물로 기획해볼 수 있다. 수험자는 평가자의 맞은 편에서 비판적 이성을 상실한 채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무기력한 소외되고 일차원적으로 반응하는 순응적 집단인가? 어쩌면 평가자는 수험자의 적이 아니며 시험에 반대하는 것이 시험의 대안도 아닐 수 있다. 수험자나 (특히 비원어민) 평가자는 영어와 고부담시험에 대해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한 정체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김은정, 「비판적 페다고지를 통하여 살펴본 대학 교양영어교재: 미국 중심의 세계관」, 『신영어영문학』 35, 신영어영문학회, 2006, pp.193-211.

박휴용, 「영어몰입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언어학』 16-1, 한국사회언어학회, 2008, pp.131-158.

박휴용, 「영어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응용언어학의 도입: 후기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한국교육』 36-1, 한국교육개발원, 2009, pp. 143-164.

박휴용,「교육과정 이념으로서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담론분석」,『교육과정연구』13-2, 한국교육과정학회, 2010, pp.1- 27.

성기완,「비평적 영어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Foreign Languages Education』 16-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9, pp.199-231.

신동일,「언어시험 개발과 사용의 철학적 고찰: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중심으로」,『응용언어학』27-2, 한국응용언어학회, 2011a, pp.27-47.

신동일,「푸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시험의 권력담론 탐색」,『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1b, pp.233-256.

신동일,「토플대란에 관한 비판적담론분석」,『응용언어학』, 한국응용언어학회, 2012, pp.187-210.

신동일, 김주연.「영어교육 광고에 나타난 원어민과 내국인의 이미지 분석 연구」,『영미어문학』100, 한국영미어문학회, 2011, pp.235-257.

신동일, 김주연.「토익수험자의 인식 연구: 비판적언어평가론 관점에서」, 미출간 연구논문, 2012.

이창봉·박주식,「문화제국주의와 비판적 영어교육 커리큘럼」,『응용언어학』23-1, 한국응용언어학회, 2007, pp.173-200.

정정호,「언어, 담론, 그리고 교육: 전지구화 복합문화시대의 비판적 언어교육을 위한 예비적 논의」,『국어교육』115, 한국어교육학회, 2004, pp.47-64.

Block, D. “McCommunication: A problem in the frame of SLA.” In D. Block & D, Cameron (Eds.), *Globalization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Routledge, 2002, pp.117-133.

Bourdieu, P.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Brookfield, S. D. 성인학습을 위한 비판이론 [*The power of critical theory for adult learning and teaching*]. (기영화, 김선우, 조윤정 공역). 서울: 학지사, 2009. (원전은 2005년에 출판)

Cameron, D. *Good to talk? Living and working in a communication*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Goffman, E.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Cook, G. *Applied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2nd Ed.).* London: Longman, 2001.

Fairclough, 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2005.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Books. 1979.

Fromm, E.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41.

Hamp-Lyons, L. "Ethics in language testing." In C. Clapham & D. Corson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7: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Dord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pp.742-775

Hamp-Lyons, L. "Social, professional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language testing." *System,* 28-4, 2000, pp.579-591.

Habermas, J. *Legitimation crisis.* Boston: Beacon Press, 1975.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Boston: Beacon Press, 1987.

Harbermas, J. *Postmetaphysical thinking: philosophical essays.* Cambridge, MA: MIT Press, 1992.

Harbermas, J.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1992.

Horkheimer, M. *Ellipse of reason.* New York: Continuum, 1974.

Horkheimer, M., & Adorno, T.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Seabury Press, 1972.

Hymes, D. H.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Penguin, 1972, pp.269-293.

Janesick, V. "Reflections on the violence of high-stakes testing and the soothing nature of critical pedagogy." In P. McLaren & J. L. Kincheloe (Eds.), *Critical pedagogy: Where are we now?*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07, pp.139-248.

Lynch, B. K. “Rethinking assessment from a critical perspective,” *Language Testing*, 18, 2001, pp.351-372.

Marcuse, H. *One 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1964.

McNamara, T. “The socio-political and power dimensions of tests.” In E. Shohamy & N. H.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7: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2nd Ed.).* New York: Springer, 2008, pp.415-427.

McNamara, T., & Roever, C. *Language testing: The social dimension.* MA & Oxford: Blackwell, 2006.

Menken, K. “High-stake tests as de facto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E. Shohamy & H.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7: Language and assessment, (2nd Ed.).* New York: Springer, 2008, pp.401-413.

Morgan, B. “Poststructuralism and applied linguistics: Complementary approaches to identity and culture in ELT.” In J. Cummins & C. Daviso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education, vol. 15: English language teaching.* Norwell, MA: Springer, 2007, pp.949-968.

Peirce, B. N. “Demystifying the TOEFL reading test.” *TESOL Quarterly,* 26, 1992, pp.665-691.

Pennycook, A.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A critical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1.

Poster, M. *Critical theory and poststrualism: in search of a context.*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Reagan, T., G., & Osborn, T. A. *The foreign language educator in society: toward a critical pedagogy.* Mahwah, New Jersey: Lawrence Earbaum Associates.

Shohamy, E. *The power of test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uses and consequences of language tests.* London: Longman, 2001.

Spolsky, B. *Measured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Exploring High-stake English Language Tests from Critical Theory

Shin, Dong-Il

This paper begins with introducing critical theory,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and its sub-area, critical language testing. Critical theory has important elements to offer research and practice in language testing, not as a replacement for current testing practices, but as a socio-political approach to making decisions and judgements about individual language ability. In this paper, different meanings of critical theory (ideology, hegemony, alienation, reason, democracy) are elaborated for high-stake English language testing research. Arguments are stated for the importance of critical theory in fully understanding the socio-political dimensions that lead to a democratic society of education. This paper explores a number of tasks for critical language testing including learning to challenge ideology, contest hegemony, overcome alienation, learn liberation, reclaim reason, and practice democracy where big testing culture dominates test-takers and test-users. It is hoped that the attempt is well-working to place the “critical” into language testing by emphasizing that it is an inherently political process. Possible areas of research related to the critical language testing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Critical Language Testing, Critical Theory, High-stake testing

신동일
소속: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2-820-5098
전자우편: shin@cau.ac.kr

이 논문은 2012년 3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30일 간행함